

종립학교를 가다

(4)보문중·고등학교

보은교육 중시... 1년 40권이상 독서

보현보살의 행원과 문수보살의 지혜를 본받자는 뜻에서 이름도 두 보살의 앞 글자를 따서 교명을 정한 대전 충청지역의 유일한 종립학교인 보문중·고등학교는 이사장 덕해스님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현재 중학교 651명, 고등학교 1465명의 청보리들이 학업에 매진하고 있다.

보문중·고등학교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지역 최고 명문 사학이다. 이는 고등학교의 진학을 하나만 보아도 금방 알 수 있다. 서울대의 경우 96년도 19명을 비롯해 매년 평균 15명 이상의 합격자를 배출했고, 지역

다양한 교육활동이 학생들에게 정서적 안정을 주고 학습에 전념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학습 부진학생들에게 정규 교과 수업에 대한 적응 능력을 높일 수 있게 수준별 이등 수업을 실시하고 있어 학생들의 학력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창의력 신장을 위한 고전 읽기 및 수준별 독서 지도를 실시하고 있는 것도 보문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교육 프로그램이다. 학생들에게 학년별 필독 도서를 선정해 알려주고 독서감상문 콘테스트, 독서 논술 경시와 독서



보문중·고등학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한 인성교육을 통해 지역 최고의 명문 사학으로 발돋움했다. 사진은 학교법당에서 열린 대전지역 파라미터 신입회원 입학선서식.

권학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실행활동도 왕성하다. 파라미터 학생회의 경우 중학교 180명, 고등학교 100여명의 학생들이 정기법회, 수련회, 지역뿌리찾기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고, 학부모로 구성된 한우리 어머니회도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신심을 키우며 학교교육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있다. 특히 교직원들은 매주 1명이 신앙체행 또는 불교교리 가운데 한 주제를 가지고 발표하는 신앙조화를 열고 있고, 매월 셋째주

화요일에는 중·고 합동법회를 봉행하며 부처님과 같은 바른 스승이 되겠노라고 서원하고 있다.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이웃에게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보살도를 실천하는 인재 양성의 도량인 보문중·고등학교는 교사, 학생 모두가 수행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열심히 학업에 정진하고 있다.

김두식 기자

충남사찰 사재출연 세취 서울대 진학 평균 15명

명문 대학인 충남대에도 95년도 236명 등 매년 평균 180명이 합격했다.

이같은 명문 대학에 많은 학생들을 진학시키는 데에는 보문 나름대로의 비법이 있다. 그것은 바로 권학이념을 바탕으로 실시하는 인성교육, 부모와 이웃에 감사하는 마음을 길러주는 '감사 보은의 날', 참자아를 바로보는 '선 명상 수련 활동', 공동체 의식의 배양과 학생 개개인의 잠재능력을 최대한 개발 신장시키는 학생주도형 전일제 클럽 활동, 학습주제 해결을 위한 소풍과 테마별 수학여행 등

사이버 도서관 운영 교직원 매주 실행당 발표

퀴즈와 같은 행사를 통해서 독서를 장려하고 있다.

또한 2년전부터 도서관 업무를 전산화해 학생들이 쉽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고, 인터넷에 사이버 도서관(http://bogo.wo.ro/)을 운영, 논술지도를 실시하고 있다. 중학교에서도 학습 문고를 설치하고 매일 독서 시간을 정해 책을 읽고, 독서록을 만들어 학습 능력을 키우고 있다. 이와 더불어 2주 1책 읽기 운동을 펼쳐 최소 1년에 한 학생당 책 40권 이상씩 읽고 있다.

"참되고 쓸모있는 인재 육성"

보문고 차세희 교장



"55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보문은 선 후배가 사제지간이 되어 사랑으로 이루는 교육의 장입니다."

보문고등학교 5회 출신인 차세희 교장은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학생과 연구하고 신뢰받는 교사가 합심하여 보문의 역사와 전통을 세워나가고 있다며 이렇게 학교를 소개한다. 그는 또 지역사회 사학의 선구자로서 3만여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으며 이들은 불교계 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등 각 분야에 진출해 지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자랑한다.

"참되리라 쓸모있리라 끝까지"라는 교훈아래 권학이념을 생활화하기 위해 차 교장은 매주 월요일 그 주에 생일인 1학년 학생들에게 직접 <부모은중경>을 가르쳐 부모, 이웃사회에 감사하는 마음을 길러주고 있다. 또 '선 명상 수련 활동'을 통해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방만하지 않고 흐트러지지 않는 마음을 가지게 하는 등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한 효행과 인성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같은 인성교육이 학력신장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보문 교육의 비결이라고 차 교장은 말한다. 그래서 차 교장은 앞으로 종립학교의 특성을 살린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 학생들에게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동이력 탐방

파라미터 선우회

실행·문화·봉사 왕성한 활동 귀감

학생 자치 활동을 강조하는 보문고등학교에는 BESS, 만다라 등 보문의 역사와 전통을 함께하며 청소년 문화를 선도하는 동아리들이 많다. 그중에서 가장 활동이 왕성한 동아리는 바로 파라미터 선우회(회장 맹상수).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우리 전통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전파시키기 위해 심심계발을 하기 위해 창립한 선우회는 회원만도 100여명이 넘는다.

파라미터 선우회는 매주 화·금 아침 정기법회를 봉행하며 서로의 친목을 도모하고 신심을 키우고 있다. 또 부처님 오신날 행사때 등과 장엄물 제작, 여름 겨울 수련대회, 봄·가을 사찰순례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



고 있다. 특히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점심시간을 활용해 회원들이 스스로 당번을 정해 법당을 청소하고 있고, 인근 법동 사회복지관에서 전 회원이 봉사대원으로 활동하는 등 주위의 귀감이 되고 있다.

그 외에도 대전지역 파라미터 연합회에서 주관하는 전통놀이대회, 문화재 답사, 어울마당 등 행사에 주도적으로 참석하고 있고, 다음 카페에 선우(cafe.daum.net/wearegoodfriend)방을 만들어 사이버 상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펼쳐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고 있다.

교법사실에서 김홍섭·신병권 교법사

청보리 불심 지피는 보현

90년대 중반 새로 지어진 법당은 보문의 자랑이다. 학생은 물론 교사와 학부모를 비롯해 대전지역 불자들이 십시일반 시주를 해 전부를 조성했고, 규모 역시 종립학교 법당 가운데는 최고이기 때문이다.



이곳 법당에서 미래 불교 주역들이 청보리들에게 불심을 지피는 보문중 김홍섭(사진 왼쪽) 교법사는 파라미터 학생회는 물론 한우리 어머니회, 중·고 직인합동 법회 등 불교활동을 이끌고 있다.

그는 또 대전 불교의 마당발로 통한다. 대전지역의 파라미터 교사불자연합회 창립의 산파역할을 했고, 보현불교대학에서 10년째 후진양성에 매진하고 있다. 게다가 대전교도소 교화위원으로 매주 무기수와 장기수를 대상으로 불법을 통한 심성교화에 전념하고 있으며 지금도 지역 내 실행단체 행사에는 빠지지 않고 참석하기에 바쁜 애정이다.

신병권(사진 오른쪽) 교법사는 올해 초 부임한 신입 교법사다. 정부투자기관에서 안정된 직장 생활을 했던 그가 이곳 보문 중학교로 오게 된 것은 대학시절 품었던 꿈을 실천하기 위해서다. 아직은 학교 행정에도 익숙하지 않지만 청보리들의 불성을 키워주는 일이 즐겁기만 하다.



이선옥의 선무 건강법 ⑥

•스트레칭•

선무기법은 생각을 비우는 방법으로서 동작을 통한 명상 즉 잡다한 생각을 끊고, 생각을 비워 적극적인 명상을 하는 것이다. 선무를 통해 잠재되었던 모든 기억력을 자유롭게 표현함으로써 그 과정 자체가 심층적 무의식 속의 우울증이나 스



반노코고 생각비워

우울증·스트레스 풀어

트레스, 척추 또는 전신에 오는 압박감을 풀어줄 수 있게 된다.

1. 숨을 들이마시며 단전부위를 볼록하게 밖으로 밀어내며 천천히 오른 무릎을 들어 가슴으로 가져오며 양손으로 무릎을 잡는다.
2. 숨을 내쉬며 '이' 소리를 내면서 천천히 양팔을 머리 위로 뻗으면서 오른 다리를 천장으로 향하게 한다.
3. 내면서 천천히 다리를 바

다코로 내린다.

4. 양팔을 옆으로 벌려서 양손을 단전으로 가져온다.
5. 바닥에 내려진 다리를 밖으로 돌려서 발과 무릎이 삼각형 모양이 되게 한다. 단전부위를 볼록하게 밖으로 밀어내며 다리를 시작한 자세로 가져온다. 왼쪽다리에 반복하면서 '뽀' 하고 소리를 낸다. 두 다리를 같이 시도하면서 '꼬' 하면서 호흡을 가다듬고 마무리 한다.

지역불교 문화기행

더위 식힐 동해 3寺 순례

7월: 건봉사·낙산사·등명낙가사·정동진역

무더위가 시작되는 초여름의 길목에서 시원한 해안가에 위치한 사찰을 찾아가는 삼사순례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대웅전에 서 내려다 보이는 일출이 장관인 등명낙가사에서는 인간문화재 유근형씨가 5년에 걸쳐 만든 오백나한상을 친견하실 수 있습니다. 또 드라마 <모래시계>의 촬영지로 유명한 정동진역도 구경하실 수 있습니다.



의상대사가 세운 최초의 화엄도량 낙산사에서는 동양 최대의 해수관음상과 의상대사(사진)가 관음을 친견한 기도처인 흥련암을 참배하실 수 있습니다. 돌아오는길에는 영불만일회의 발상지이자 부처님 진신처야 사리가 봉안돼 있는 금강산 건봉사도 찾아갑시다.

- ◇출 발: 7월21일(토) 밤11시 조계사 앞(무박2일)
- ◇회 비: 5만5천원(조식·중식제공)
- ◇접수처: 현대불교신문사 (02)722-4162-3
- ◇입금계좌: 조흥은행 322-04-221460(예금주 선정호)

주최: 현대불교신문사 후원: (주)한화여행

불교를 가장 쉽게 만나는 길

한눈에 불교가 보인다.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 ◆ 세계로 열린 불교정보의 산실, 현대인을 위한 디지털 법당. 도서관에서 책을 펼치 듯 인터넷에서 가벼운 클릭으로 정보여행을 떠나자! 아름답고 넉넉한 부처님 세상이 있는 곳으로...

맛 최고, 멋 최고 기분 최고 쇼핑을 즐기는 곳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 ◆ 집 근처의 슈퍼마켓? 유명백화점? 거기에는 없습니다. 불교용품을 한곳에서 만날 수 있는 불교쇼핑 전시장! 주문도 배달도 안방에서.. 문화쇼핑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불교뉴스 오늘 읽고 본다.
일간 붓다뉴스 www.buddhanews.com

- ◆ 불교를 만나는 일주문 붓다뉴스를 클릭하는 순간! 따끈 따끈한 불교뉴스에서. 신행정보, 생활상담까지 불교의 모든 것을 그날 그날 접하게 됩니다.

클릭 한번으로 책주문이 가능합니다.
여시아문 닷컴 www.yosiamun.com

- ◆ 2만여 불교서적이 검색 클릭 한번으로 푹푹! 국내 최대의 불교전문 서점 여시아문이 주문에서배달까지 최고의 서비스를 책임집니다. 전화주문도 가능합니다. 02) 737-0695